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스

광주 첫 복합쇼핑몰 상생협의체 출범 '초읽기'

전통시장·청년·상인회 등 20여 단체 참여... 12월 첫 논의
 상권영향평가·상생대책 공유... 피해업종 지원방안도 검토

광주 지역에 들어서는 대형 복합쇼핑몰이 현실화함에 따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협의회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셋째 주 복합쇼핑몰 건설을 추진중인 업체 3곳과 5개 자치구, 의회, 청년단체, 지역소상공인협회,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20명 안팎으로 가칭 '복합쇼핑몰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한 뒤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5월 대형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 용역 중간발표를 통해 "지역 상권은 전반적으로 외부고객의 유입이 낮은 내수형 상권으로 지난해 기준 점포 이용객은 지역민이 81%, 타 지역민 19%로 분석됐으며 인구가 감소할 경우 상권도 같이 쇠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전·대구 등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화장품과 커피·제과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매출액이 상승했고, 타 지역민 이용 비중도 40%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광주에 접목하면 '더현대광주' 반경 5

km에서는 슈퍼마켓, 음식점, 의류·패션·잡화, 커피·제과, 가전·가구·생활잡화 업종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상권영향평가 용역 최종 결과는 다음달 초 도출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협의회에서는 더현대광주 등 복합쇼핑몰 건립사가 제시한 소상공인 상생 대책안을 공유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더현대광주는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지역 상인들이 입점할 수 로컬매장 신설, 광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쿠폰 발행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특별보증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출범에 앞서 시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제안한 복합쇼핑몰 대시민 토론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더현대광주 착공식을 계기로 상생협의체 출범도 서두르고 있다"며 "유통 관련 법규에는 복합쇼핑몰 준공 60일 전에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광주는 사전에 구성해 충분히 논의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

광주·전남, 민 조별 경선 시험대... "과열 방지" vs "공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에서 '조별 경선'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후보 난립이 이미 현실화 되고 있는 탓에 광주·전남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원주권시대에 걸맞게 역올한 컷오프를 없애는 대신 예비경선에서 당원 100% 투표로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로 했다.

정청대 대표의 소신과 철학이 반영된 규칙으로, 후보가 많은 선거구의 경우 A, B조로 나눠 조별 경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역·기초단체장 예비후보가 4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6명 이상이면 조별 경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에선 광주시장·전남지사 등 광역 2곳, 5개 구청장과 22개 시장·군수 등 기초 27개 선거구 중 최소 10곳에서 민주당 소속 출마 예정자가 6명 이상에 달해 조별 경선을 치러야 할 상황이다.

선거일 120일 전인 내년 2월3일 시·도 지사와 교육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면 선거구별 후보

4인 이상 예비경선, 6인 이상 A·B 조별 경선 유력... 100% 권리당원

광역·기초총 입지자 6명 이상 10여곳... "조 편성 기준과 물이 관건"

자수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별 경선 대상지로 10곳 안팎이 선정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북구청장 후보군이 12~13명에 이르고, 서구·동구에서도 각각 7명, 6명이 민주당 공천에 도전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여수가 10~11명, 목포가 8~9명, 구례·완도가 각 8명, 광양·신안 각 7명, 화순이 6명이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 현직을 포함, 각각 5명이 여당후보군을 형성한 가운데 중앙 인사 등이 가세할 경우 6명을 넘길 수도 있다. 광주 남구·광산구, 전남 순천·보성·해남·무안 등 6곳은 5명이 각 축중이어서 조별 경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조별 경선은 자주 등장하는 물은 아니지만 컷 오프를 위한 그룹 경선이나 지역별 분리 경선, 경쟁 밀집지 조 편성 등의

형태로 간헐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정치적 실험에 지역 정가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일단, 과열 경쟁을 완화하고 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다 특정 지역·계파가 판을 흔드는 조직 선거의 폐해도 막을 수 있고, 토론·면접·정책비교 등 정성적 평가를 보다 면밀하게 할 수 있는 점은 기대되는 대목들이다. 경선 절차나 여론조사를 운영하기 수월해져 경선 시스템에 안정을 꾀할 수도 있다.

반면 우려도 적지 않다. 공정성 논란이 대표적이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조 배정이 이뤄졌다'는 식의 조 편성 자체에 대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끼리 한 조에 묶일 경우 강자들의 조별 탈락으로 본선 경쟁력에 괴리가 생길 수도 있고, 축구월드컵에 빚대 '죽음의 조' '행운의 조'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 당원과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필요한 계파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총선 지역구 따라 갑, 을로 조를 나눌 경우 특정지역 쏠림 현상과 조직선거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고, 조별 경쟁자수가 틀리면 동수(同數) 논란이 일 수도 있다.

한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는 "새 대표 체제 첫 지방선거이자 정권 연장의 교두보라 압승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공정성과 대표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 편성 기준이나 경선 룰의 투명성이 성패를 가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지자는 "조 편성 결과가 공경선구도를 좌우하고 공천과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뒷발 경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라며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조별 1, 2, 3순위 선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전남도, 고3 수험생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

12월 말까지... 사례 공유·권리 보호 절차 지원제도 등 안내

전라남도교육청이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예방교육'을 한다.

최근 전남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56%가 청년층으로, 사회 초년생이 전세사기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3 수험생은 수능 이후 대학 진학이나 독립을 준비하며 전월세 계약을 처음 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도교육청과 협력해 145개 고등학교 약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은 전남

도 주거복지센터의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전세사기 실제 피해사례 소개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전세사기 예방 영상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권리 보호 절차 ▲보증보험 가입 안내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 등이다.

광주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고3 수험생은 앞으로 생애 첫 전월세 계약을 해야 하나 절차가 생소할 수밖에 없다"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Self **참숯구이**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10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